

플라스틱 재활용해 기름 생산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사용은 1차원적 사업 ... 원료화 사업으로 다각화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대표 이국노)가 2004년부터 석유 사업과 고형화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존의 재활용 방법인 플라스틱 재생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을 통해 기름을 생산하는 사업이 과연 수익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는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국노 회장은 12월29일 열린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Korea Plastic Recycling Coporation) 송년의 밤 행사에서 “그동안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던 방식은 폐기물 수명연장일 뿐 재활용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고형화 및 기름 생산이 진정한 재활용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권태문 회장, 환경부 박결호 차관, 중소기업중앙회 유기정 회장,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이국노 회장

내 홍보관을 설치해 분리배출 방법 및 플라스틱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년의 밤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은 앞으로의 활동보고와 석유화학공업협회의 120억원 지원, 경기도와 환경부의 적극지원 사실만을 강조했다. 진행될 사업에 대한 수익성 및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은 전무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원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의 여부는 설명하지 않은 채 장밋빛 미래만을 거론해 과연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PRC는 사업 보고를 통해 매주 700톤의 플라스틱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860톤을 처리했다고 2003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진행중인 재활용 사업이 플라스틱 재사용 사업에 의해 대부분 진행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협회 스스로 플라스틱 재사용의 성과가 높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플라스틱 재사용 사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지원금과 세금을 투입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새로운 사업만을 구상하는 것은 단순한 전시행정 및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 박결호 차관은 “EPR제도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에 무임승차해온 생산기업과 유통기업들이 국민, 정부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밝혀 기업들의 책임 분담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31>